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 朝光 女性 少年 發行

今後政局新對策에 湯淺內府態度愼重
軍部財界等意見聽取

【東京電話同盟】重臣方面에서는 政局一新에 對處하여 萬全의 措置를講究하려고 愼重考慮를하고 잇는데 特히 湯淺內府로서는 阿部首相이 重大決意를 表明한後 重臣인 近衛樞府議長과 重要協議를 한은勿論、元老西園寺公에게도 會見하고 最後의 斷을 決定하는데 對하여는 從來의境遇와 다름이업스나 다만 重臣의 意向을 打診하는데 그치지안코 從來의 形式에 拘泥함이업시 現狀에 卽應하여 適切한 措置를取하려는것으로보여 今後情勢에 應하여는 特히烟陸軍、吉田海軍兩相을會見하는外에 될수잇스면 財界方面의 意見等도 널리 參酌할 意向을가지고잇는模樣으로 今後의 政局安定工作에잇서서 內府가 어떠한 方策을 講究할지가 極히 注目된다 (寫眞은 湯淺內府)

首相、遂決意表明
十二日定例閣議에서

首相、遞內相과懇談

【東京電話同盟】十二日의 定例閣議開會에앞서 阿部首相은 大久保私邸에 午前九時五分에는 永井遞相에게、同九時十分에는 小原內相에게 各各來邸를求하여 政局一新의 決意를 堅固히하게된것을말하고 懇談을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局一新에關하여 重大決意를 굳게한 阿部首相은 十二日定例閣議後 各閣僚에對하여 支那新中央政權樹立에 對한 我基本方策도 이미決定되어 事變處理는 이제新段階에 들어가게되엇스므로 新事態에 處함에는 此際民心의 一新을 圖할必要가잇슨즉 新體勢下에 庶政의構想을 꾀할必要가잇다 하여 그決意를 披瀝、諒解를 求하고 午後二時政務奏上次 宮中에參內 御前을退下後 內大臣府에서 湯淺內府와會見하고 其後의政情에關하여 詳細히 報告하고 政府가取할方途에關하여 決意를굳게하게된 事情을 述하여 諒解를求하기로되엇다 그런데 그具體的措置에 關하여는 各閣僚도모두 首相에게 一任하엿스므로 首相은 十四日午前中에 臨時閣議를召集하고 最後的措置를 取하게될터이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十二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阿部首相以下全閣僚出席 먼저河原田文相으로부터 昭和十五年度國民精神總動員에 對하여報告、이어서永井、伍堂、小原各相으로부터所管事項에對하여 各各報告 午餐을 함께하고 正午散會하엿다

十四日臨時閣議召集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政局에關한 具體的手續을 하기爲하야 十四日午前九時 首相官邸에 臨時閣議를 招集하고 全閣僚의 出席을 求하여、席上에서 首相으로서의 決意를 披瀝하여 全閣僚의 同意를 求하여 一旦 休憩하고 首相은 宮中에 參內、天皇陛下께 拜謁、政局一新에 關하여 內閣首班으로서의 決意를 奏上하기로 되엇다 따라서 政局은 이를契機로 急轉回를보여 湯淺內府는 十四日中에도 西園寺公을 興津坐漁莊에 訪問하기로될것으로 그結果 時局拾收策은 順調로進行되어 十五日부터 새로운形態를取할 新展開를 보이기로되엇다

疑雲中의阿部內閣 (上)

李甲燮

온 세상이 阿部內閣을 가르처 그 誕生하던 瞬間부터 弱體內閣이라 하엿고 따라서 短命하리라고도 豫想하엿다 短命內閣 即 弱體內閣이라는 論法은 잇슬수잇섯지만 弱體內閣 短命內閣이라는 推論은 이경우에잇서서 아주 立證될것갓다、阿部內閣의 運命은 이미 斷定된 形勢다 어미 斷定될 運命을 가지고 이와가치 오래동안 사드는 것은 時局이 重大하여 함부로 政變을 不許한다는 客觀的情勢에 左右되는點도 잇겟지만 그보다도 이內閣이 가지는特性、「制裁力의 不足」이라는데 더큰 原因이 잇는것갓다 우리의 常識으로하면 時局이 重大하면 重大할수록 몸가짐을 재빠르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떠튼 阿部內閣은 그 成立當初부터 排斥을 더하기에 이르기까지 阿部首相의 明朗한 氣色에도 不拘하고 余은 國民에게 憂鬱을 풀어주지 못하엿다 憂鬱을 풀어주기는커녕 실상인즉 國民으로하여금 政府信賴의 精神에까지도 어느程度의 動搖를일으키게하엿다 阿部內閣이 無爲無能하엿다는點에 對하여는 世評이 벌서 輿論程度를 떠나 거의 輿論化된感이 업지안타.

◇

그런데 阿部內閣이 戰時下第三回째의 內閣으로서 特히 國民一般에게 無爲無能하엿다는 느낌을 남기고가는데는 어떠한 理由가 잇는가 身이 가지는能力에도 달렷지만 客觀的 情勢가 한層더 이길을 더하도록하엿다는 事實도 看過치못할것이다 日本에잇서 政治의貧困을 恨嘆하기 시작한것은 어제 오늘의일이 아니다 二‧二六事件後 所謂 革新方面을 背景으로하고 나타난 數次의內閣이 모두가 無能은 無能이라도 政黨을 보아 無爲이엇다는點에서는 不幸히도 一致되엇다 戰時內閣으로서의 第一回內閣 近衛內閣도 브르지즌豪聲에 比하여 아무런 政績도 업섯다 近衛內閣은 數 個月만에 退陣하엿스나 그 실상인즉 平沼首相과가치 가르쳐 外交問題에 걸려섯다는 것이 眞相이듯하다 마치 이번 阿部와가치 昨年봄 再開議會中에 近衛가 退却하고 平沼가 登場하자 天下는그에게 期待하는바가 적지아니하엿다 그는 日本에잇서 最高有能한 政治家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엇다 뿐만아니라 所謂 革新方面에서 까지도 이이의 손으로 무슨 革新政策이 實施되리라고 미덧다 다만 그가 팟쇼의 本質的으로 알려저서 팟쇼의 無理한 政策을 念慮하여 마지아닛스나 그는 特히 팟쇼的 人 特色的政治도 해보지못하고 말엇다 昨年八月二十八日 對歐洲政策의 失敗로서 退陣을 不得已하게될때까지 一般의 期待에도 不拘하고 「良字」그대로 無爲無能이 엇다.

◇

무엇을 줄것가태가지고 실상은 아무것도 주지못하고 간 近衛平沼兩內閣을 餞送하고난 國民은 次期內閣에 對하여 그만큼 큰期待를 가젓다 처음부터 阿部內閣의 弱體를 指摘하면서도 그래도 또박게 도리혀 이런內閣의손으로 무엇이 주어지지 안흘까하고 餘望을부친것은 一般國民이 너무도 목이말랏던 까닭이다 阿部首相은 軍出身의 唯一한常識人이요 明朗、機敏을 兼全한사람이며 또 板垣前陸相이 推薦한 有爲한人物이엇다.

그러면 어떤 有爲의人物이 果然 國民에게 무엇을선물하엿스며 政府으로 무엇을 남겻는가 軍의期待에도 不拘하고 一般의 希望도이보미 업시 阿部內閣은 처음부터 「푸라스」가 아니고 依然 「마이나스」方面으로 달리기 始作하엿던것이다.

英機三機를擊墜
獨逸軍司令部發表

【伯林十一日發同盟】西部國境附近을偵察中 敵空軍과數回戰鬪를 相交하여 敵機二機를擊退시켯는데 我飛行機一機도 敵機를追跡 中코른말附近에서 不時着하여 機體를大破하엿다 그리고 브리스톨‧브렌하임型英國機九機는 我飛行場의爆擊을企圖하엿스나 이亦是擊退되어 그中三機는擊墜되엇다.

英、獨空軍擊退

【倫敦十一日發同盟】倫敦에達한 各地로부터의 情報를 綜合하여보면 十一日 午前中에、獨逸空軍은 템스河口 英國東南岸 東海岸타인河口近海及 험버河口近海 스코틀랜드 南岸等 數個所를 襲擊하엿스나 到處에서 高射砲及 英國防空戰鬪機의 邀擊을바다 目的을 達成치못하고 擊退되엇다

아프가니政府 强制徵兵制度實施

【카불十一日發同盟】英獨蘇三國의角逐을圍繞하고 近東中東方面邊境地方의 不安이 增大하고잇는이때 十一日 아바스通信에 依하면 아프가니스탄政府는 國土防衛의 完璧을 期하기爲하여 드디어 十七歲以上의 男子에對하여 强制的國民徵兵制度를 實施하기로 決定하엿다 이와同時에 武器購入及交通 道路의 擴張을 決定하엿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政府는 反共政策을 强化하여 共產黨의 活動에 對하여는 斷乎한 取締를 加하고잇다

獨潛水艦建造에專力

【코펜하겐十一日發同盟】獨逸은 英佛의 海上封鎖에 對抗하여 潛水艦을 巧妙히 使用하여 英佛通商路를破壞하는 同時에 新鐵重艦으로써 封鎖線突破를 꾀하고 잇는데 十一日附 有力紙베르린 레이덴紙는 獨逸은潛水艦의 建造에 全力을다하고잇다 各方面의情報를 綜合하건대 獨政府는 이미 英、獨海軍協定破棄 以來 計劃的으로 潛水艦隊의 迅速한 增强을꾀하여 目下十六個所의造船所에서 潛水艦建造를 行하고 잇고 또兩三日來昨年進水한비스

米上院金融委員會 對芬借款供與案審議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上院金融委員會는 十一日 財務省及復興金融會社의 要請에依한 對芬蘭 크레딧트供與案을 審議하엿는데 이는 芬蘭에게 米國製軍需品購入을爲하여 復興金融會社를通하여 總額六千萬弗의 크레딧트를 供與하려는것이다

英油槽船 觸雷沈沒二十隻

【伯林十一日發同盟】獨逸軍當局은 十一日 戰爭開始以來 觸雷에依하여 喪失된英國油槽船은 合計二十隻十四萬噸에 達하다고發表하엿다 이에對하여 英國側은 十九隻六萬七千噸이라고 發表하고잇다

마크及치르비크級三萬五千噸級主力艦의姉妹艦一隻을 進水하엿는데 이新戰艦은四萬一千噸級戰艦이라고報道하고잇다

西部戰線活潑化

【巴里十一日發同盟】佛軍司令部는 十一日西部戰線에서의 戰況이 活潑化하여젓다고 다음과가치 發表하엿다 十一日의 戰線은 特히 彼我砲擊戰의 增大가 注目되엇다 同時에 彼我空軍의 活動도 漸漸旺盛하여 獨偵察機一機는 我戰線內에 擊墜되엇다

蘇聯敦賀領事赴任

【浦鹽電話同盟】新任在敦賀蘇聯

魯東地區討伐狀況

【濟南十二日發同盟】〇〇部隊發表에 依한 魯東地區에서의 討伐狀況은 如左하다

一、佐野部隊 蕭家集等北分遣隊는 四日夜半 來襲한敵四百을 激擊 이를擊退하엿는데 敵遺棄死體는 三八이엇다

一、孤山集遠藤討伐部隊는 八日

敵匪에서 敵三百五十과 交戰擊走시켯다 敵遺棄死體는 三〇 鹵獲品小銃二五

一、陳家陽鎭稻木討伐隊는 七日同地西南地區에서 敵約百名을 攻擊四散시켯다 敵遺棄死體一五

米、建艦四十萬噸
타임스紙빈슨案內容報道

【十一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下院海軍委員會에서 發表한 新建艦計畫에 依하여 建造될 新巡洋艦의 性能에 關하여 秘密에 부치고잇는데 이에 關聯하여 十一日附 뉴욕타임스紙는 빈슨建艦案內容은 巡洋艦十九萬二千噸 航空母艦七萬二千噸 驅逐艦六萬噸 潛水艦四萬五千噸 其他三萬噸이라고 報道하고잇다 그리고 그建艦案에依하여 建造될 巡洋艦은 全然米國獨自의 設計에依한것이요 各艦모두 一萬二千噸乃至 一萬三千噸에 達하는데 그裝備는 各國巡洋艦보다 월신 强大한것으로 米國의 通商路及 그屬領防備를爲하여 使用하게될것이라고한다

五隻、合計二十四隻과 新年度의 戰鬪艦은 百二十隻에 達하는데이 以外에 루즈벨트大統領이 이미權限命令을할수잇는 權限이 賦與되엇스면서도 아직 이를實施하지 안는 所謂紙上艦艇의 數는 戰鬪用艦艇五十六隻、補助艦艇八隻、合計六十四隻의 多數에達하고잇다

米海軍建艦數 新年度百二十隻

【紐育十一日發同盟】월슨上院海軍委員長은 十一日新聞記者에 對하여 數字에 依하면 米海軍이 現在建造中인 艦艇은 戰鬪用艦艇七十九隻、補助艦艇十九隻、合計九十六隻인데 今年度豫算數字에 計上된 新規起工分 戰鬪用艦艇十九隻、補助艦

互惠通商擴張 헐長官下院에서要請

【華盛頓十一日發同盟】互惠通商制度의 提唱者로 알려진 헐國務長官은 十一日下院歲入委員會에列席하여 講演을하엿는데 席上長文의聲明文을 朗讀하고 米國農產業助成及世界平和確保를 爲한 互惠通商政策의 繼續을 要請하엿다

米、人事異動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國上院은 十一日루즈벨트大統領이 任命한 如左한 最近重要人事異動을 一括承認하엿다

任大審院判事 프랑크‧마‧히
任司法長官 로버트‧작슨
任檢事總長 프란시스‧비들
任海軍次官補 루이스‧이디슨
任經濟顧問 보레키츠‧지롱그

土地事業協議 十八、九日總督府서

總督府에서는 土地改良事業의 復活及新增米計畫의 實施에萬全을 期하기爲하여 各道土地改良事業關係職員을 招集하고 十八九日兩日에걸처 總督府에서 土地改良事業協議會를 開催하고 十五年度로 實施되는 增米計畫의 要旨徹底及그實施에 對하여 여러가지 協議를하기로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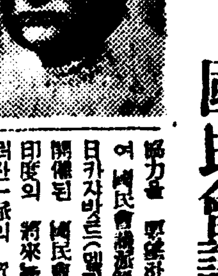
滿糧理事長 釜山上陸直時北行

【釜山電話同盟】渡東中이던滿洲糧穀理事長小平權一氏는 十二日朝釜山上陸 同七時五十分發「노조미」로 一路歸滿하엿는데 車中에서 다음과가치말한다 內地와朝鮮의 米穀減收에도不拘하고 內地는鮮、滿全部에比하면 雜穀이잇스므로 食糧은 도리어 餘剩이잇는편이다 그러므로 이를한滿洲로하여金

山東省西部地區서 國共兩軍武力衝突
重慶政府鎭壓을命令

【香港十一日發同盟】國共兩黨間의紛爭은 中央地方을 通하여漸漸激化하여醫者 山東省西部에서國共兩軍間에 大規模의 武力衝突이 傳하엿는데 이에繼續하여昨今또다시 山東省權縣、招遠、鄒城等各地에서 共產第八路軍과中央軍間에激烈한戰鬪가 開始되엇다 一方山西、河北兩省에서도 山及共產軍과張陰梧、趙鐵羅等 反共紛爭을鎭定하도록 命令을發하는同時에 事件의眞相報道를 禁止하고잇는데 重慶政府의 苦心에도 不拘하고 國共兩軍衝突의眞相은 漸漸 擴化하여 東主席沈鴻烈、僞山西省主席閻錫山等 各方面에 傳하고잇다

印度國民會議派 英協力要望反對
國民會議서 "네루"氏絶叫



【孟買十一日發同盟】印度政府는 今次戰爭에 際하여 印度의 英本國에對한 協力確保를 爲하여 여러가지 努力을하고잇서 린리스가우總督은 十日英本國의 印度에對한 目標는 完全한 自治에 잇다는 뜻을말하고 各派의一致協力을 要望하엿는데 이에對하여 國民會議派領袖네루氏는 十一日카자바른(델리東方十키로)에서 開催된 國民會議派의 集會에서 印度의 將來는總督乃至 어떠한一派의 意見에 依하여決定될것이아니요 印度人自身의 손으로하여야 한다고 린리스가우總督의 協力要請에 反對하고잇다 (寫眞은 네루氏)

白崇禧의冬季攻擊 五十萬弗懸賞으로

【廣東十日發同盟】欽州南寧道附近에서 計畫中의 我〇〇部隊는 八日仲閘(南寧南方三十六키로)附近에서 蠢動하는 敵約一千을 急襲하여 이에潰滅的大打擊을 주고 又〇〇部隊는 吳村圩(南寧南西二十키로)西南方高地에 敵約의陣地를 構築하고 守備에當하고잇는 百十三師 百十八師混合部隊에 對하여 八日以來猛攻中으로 敵은 漸次後退中으로 이제資源은 南寧道方面의 交通路는 完全히 我軍手中에確保되어잇다 그런데 지난三日 伯林舍僑日報及四日의 사우드‧차이나‧포스트紙는 廣東廣西軍에서는 約五十萬弗의 懸賞을 걸고 戰鬪에 參加케하고 勇敢하게 戰鬪하라고 督勵하고잇다

蘇芬戰況發表

【莫斯科十一日發同盟】레닌그라드軍管區司令部는 十一日 蘇芬戰況에 對하여 우크라及레닌그라드 方面에 對하여 別로 重要한 事件이 업섯다고 發表하엿다

山西軍自相踐踏

【太原十一日發同盟】遊擊軍의 全面的慘敗는 中央軍共產軍의 地方軍에 對한 必然的으로 激化시켜 連日各地에서 武力抗爭을 展開하여 自減을 招하고잇는데 最近가장 注目을 끌고잇는 것은 山西省內에서의 山西軍과 共產軍의 紛爭이다 共產勢力이 增强하여 山西省內에서의 共產勢力 增强을 黨하여 山西 軍과 閻錫山의 抗日戰線에 加하게되엇다

鹿島丸就航

【神戶電話同盟】日本郵船鹿島丸(九、九〇一噸)은 이번 歐洲行의 沿岸船으로 二十日神戶를 解纜하는 鹿島丸의 이번 就航하기로 決定되어 오는 二十日神戶를 解纜하는 東亞海運의 航路로 變更하는 東亞海運의 七十一航海船과 함께 阪神上海間을 就航시키는 外에 여러가지 緩和策을 講求하고잇고 또 南島天津航路도 時代에 卽한配船을 斷行하려고 目下 考究中이다

朝鮮農會總會

朝鮮農會에서는 來三十日午前十時부터 京城農會館에서 第十三回 通常總會를 開催
一、昭和十五年度 收支豫算의件
二、昭和十五年度 經費分賦收入方法의件
外八個案及附帶決議事項을 附議한다

人事‧集會

▲金東泰氏(黃海道知事)新任人事次十二日來社
▲丹下郁太郎氏(總督府企畫部第一課長)昨秋以來 東京滯在中十一日 「아가쯔기」로歸任
▲小林源六氏(丁子屋社長)故郷三重縣津市大門町一〇六八에서十一日逝去 享年七十四 葬儀는二十四日午後三時 府內南山町本願寺에서

八面鋒

出産의 陣痛과 殞命의 苦痛은 每樣一般인 犧牲、阿部內閣의 苦終도 可矜。

◇

『善處』一擲으로 內閣을 命中시킨 有志代議士會가 解散 飛鳥盡 良弓藏。

◇

樞密院長으로 滿家國境이 靜謐될것은 國境處理委員會 多勞多謝。

◇

어느새에 敵空軍이 南支에 再建되엇던고 인제는 아주消滅될까。

◇

駐蘇大使의 歸國으로 英蘇關係가 惡化라고。

◇

英佛蘇會談中에 獨蘇不可侵條約의 發表될때부터이니 只今새삼스럽게 惡化될리라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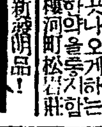
濱門政變의 態度 侮辱、그들의 口實은 또무엇일까。

◇

近衛內閣의 退任理由를 보면 再起할까 심지안한데。

◇

그러나 衆心所歸라면 公不不可辭이겟지。



두통이 끝낫는
テーリン
東京 中村信治商店 本舖

감기로인한두통에
テーリン
發賣元 京城 新井藥房

朝鮮殖產銀行

朝光‧女性‧少年發賣!
建築報國
建築資金貸付
月賦建築 設計監督 工事請負
無料建築相談部
電(本)1681 1381
黃金町二ノ五五
東京建物株式會社

朝報園
給仕 採用小學卒業以上
寫眞見習
研究生募集
生徒募集
京城
手足
고자옷고름

海州便利紙 高級萬年筆 各種眼鏡類 舶來レンズ 眼鏡 寶玉 石 ロイド空匣 各種セル
卸商 南鮮加工所
大邱府京町二丁目 柳光昌

商標 千
고초가루都 吉
金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局)一一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金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음니다

創立 明治三十二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堀正一
專務取締役 井上清
支店 出張所

朝鮮總督府看守募集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貞信女學校引繼問題 最後的妥協案成立

미슌會에서宣教本部에昨日電報로請訓하엿는데

事前諒解잇서서快諾無疑

오는신학기부터는 새학기생도를 모집하게되느냐 안느냐하여 조폐(?)의우기에서 오래동안 헤매이어오던 보내정신(貞信)녀학교의 인계(引繼)문제는 그동안경영자측인 북장로회선교회(宣教會)측과 인계자측인 이종만(李鍾萬)씨사이에 수차절충을거듭하던중 일시는교섭이 정돈되어 전도가나시여진되던것이 최근에마츰내 최후적인 타협안의 성립을 보게되어 신학기생도모집기를 눈안에두고 염려스러운가운데이던 여사

기른이학교도 이제오는사월신학기부터는 새로운경영자의 손으로 개생의첫걸음을내어 디딜수잇게되엇다 마지막으로 성립된 이번타협안은 아래와가튼데 신임원에이르러 쌍방의 의견이 완전히일치를보게되자 선교회측에서는 즉시타협안의전문을 미국전도본부에 장문전보로써 보고하여 회훈(回訓)을 청하엿는데 이미전도본부와도 대체로 사전양해가 되어잇는모양이므로 승락회답이올것도 의심없스리라고 짐작되고잇다

校舍도無償으로貸與

今春新學期, 新入生도勿論募集하게된 李鍾萬氏와引繼妥協案內容

타협안의내용은 다음과갓다

一、학교의경영권을 이종만씨에게 양도하되 학교집과 기지는 금후오개년동안 무상으로 빌려준다

一、빌리는기간인 오개년이 만기가되너래도 신경영자(이종만씨측)에서만 원한다면 다시 대차기간을 오개년 더연장할수가잇다

一、신경영자는 대차기간내에필요한경우에는 현재의 기지에다가 새로교사를신축 또는증축하여도 무방하다

一、신경영자는 오는 사월부터 경영의 책임을지되 그전으로 설립자의 명의변경을 마추도록할것

一、교직원에대한 위로금에대해서는 선교회측에서 책임을질것

이리하여 새학기부터는 이종만재단으로 경영하게되어 신입생모집도 물론새어서되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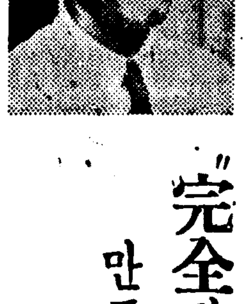
將來를祝福할뿐

宣教會側 元漢慶氏談

선교회측의 원한경(元漢慶)박사는 다음과가치 말한다 아직결정을 보지못한것(?)지금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하기는 새로경영하고저 하는분과 누차협의한결과 그이의뜻을도와서 엇그제 미국본부에 전보를햇스니까 아마래주일중에는 어떤회답이 올줄압니다 우리들로서도 될수잇는대로학교가 잘유지되고는발전되기를 바라고 잇는데 미국본부회답이어떨는지요 (사진은 원한경씨)

折衝經緯

그동안의 절충경과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처음에 인계희망자가 모모씨등수삼인이 잇섯스나 작년시월 선교회에서 여러가지 의론을거듭한결과 그중에서 이종만(李鍾萬)씨를 적임자로결정한후 인계조건에대하여 교섭을 개시하엿는데 그동안 절충을거듭하는결과 삼만원의사례금으로 현교사와 기지전부를 신경영자에게양여하기로 쌍방의 의견이일치되엇스나 그후선교회 내부의복잡한사정으로 이 원안은드디어수포로 도라가게되어 교섭은일단중단되고 말게되엇섯다 그러나이것으로써 완전히 끈허지고마는날이면 정신여학교는 기정방침대로 오는신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중지하고 운명에 잇게되엇스므로 학교를 살릴도리에대하여 쌍방에서 다시금 성의를 피력하여 연구를거듭하게되어 그결과 수일전 선교회측으로부터 별항과가튼 오개년대차안(貸借案)을 제안하게되엇다 이것은 선교회가 처음에 언약한매도안(賣渡案)파는 상당히 거리가잇슨것이엇스나 임박한이학교의 폐교를고려하여 학교를살리자는 대승적입장에서 이씨측에서 그대로받기로되어 드디어 작십일일에이르러 원만한타협을보게된것이다



"完全한學校를 만들어볼心算"

引繼者側 李鍾萬氏談

처음선교회에서 우리에게 말해준언약과는 퍽어긋나게되어 일시는 퍽곤란하엿스나 어떠튼 학교는 살려노하야되겟다는마음에서 그리하마고 승낙하엿습니다 이제이일이완전히 끗나서 우리손으로 학교를맛게된다면 미력이나마 남부럽지 안케 완전한학교를만들어보겟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도 만히도와주십시오 (사진은 이종만씨)

鮮滿氷上對抗戰後感想

男子는伯仲之勢 女子는朝鮮軍不利 ②

滿洲女子軍의快技를보라!

◇女子部=滿洲女子軍의陣容을 살펴본다면 일찌기 全日本女子氷上界의 第一人者로 名을떨치던 江島選手를 主將으로 金繼日朝鮮軍을 目標로하고잇는데 江島孃은 日本最高記錄保持者로 五百米에五十一秒八、千五百米에二分四十五秒五、三千米에六分六秒란 大記錄을作成한만치 朝鮮軍의 鶴谷、李仁九孃의五百米一分一秒貳로는 天壤之差를보이고잇다 滿洲의大倉孃은 五百米에 五十四秒六、鄭孃은 五十七秒三의記錄을 最近에作成하엿는데 五百米에는 朝鮮軍이 全敗를 免할수업슬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三千米는 오픈 코ー스이기때문에 [illegible] 年內鮮滿對抗에도 滿洲軍을 敗倒한 鶴谷孃이 못지내勝利할것요로 勝敗는 헤아리기어려운바잇다 千五百米에는 五百米와가튼 形勢에잇는데 金浚在、田代、淺滿諸孃의 實力으로는 追及하기 어려울것이다 이리하여 三千米競走에는 江島、鄭手、大倉、三

[illegible]

◇男子部=[illegible]

建築用物資需給 中央側、斡旋을承認

各都市住宅難緩和에朗報

각도시의 주택난(住宅難)문제는 식량문제나 못지안흔중대문제로서 총독부 이하각관계방면에서는 여러가지로 그대책을 강구하기에 실로 심혈을기우리는중인데 문제가 용이히해결되지못하는까닭은 자금문제도 기재문제도 아니다 오직건축용자재가 부족한관계이다 이건축용자재는 전시물자동원계획(物動計劃)에의하여 조선독자적으로 수급할수가업서서 일일히 중앙과절충하야 판수(官需)、민수(民需)를 공급하고 승인을 엇지안흐면 안되는것인데 전시물자난(物資難)은 자못심각한바잇스므로총독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승인이 되지안는것은물론이오 약간승인되는것이라도 실제배급이 되기까지에는 상당한시일을 요하게되어서 가외부지하세월로 된다 그래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의 동경에 의하야 계획(企劃)을 세워 가지고 이미 설계까지완성된 각주요부 읍(府邑)의 공영주택과 주요은행 회사의사택건축도 작년여름에 그숫자가 선총독부에 요구한채 이미해가박귀고 만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이문제를 되어가는대로 맷겨 두수가업는 중대문제라하야 작년가을이래 기획원(企劃院)과상공성(商工省)에 절충중이든 기획부 단하제일과장(丹下第一課長)을 지난번 그동안 전보로 동경으로보내어 현지에서 절충케하여온결과 적당한 수량을 집계하야 보내면 승인하기로대개 양해가 성립되어서단이다

하제일과장은 십일일 오태가단에 귀임하야왓다 그리고 명년도조선취단 주택주영 주택또는수용(?)에 회사의 경영사택에 대한 건축에 소용될건축자료는 내무국사회과에서 이미그수량을 집계하야 기획부로 넘겻스므로 기획부에서는 이것을 일단사정하야가지고 곳기획원에 발송할터이다

京忠빠쓰顚覆

乘客十八名重輕傷 重傷七名中二名危篤

십일일오후여섯시쯤 경기도광주군중부면상산곡리(廣州郡中部面上山谷里)간이(簡易)학교아페서 여주(驪州)를떠나 경성으로오던 경충(京忠)『빠쓰』경(京)사천오백이십구호(運轉手一金文培一(?))가 승객이십이명을 태워가지고진행중 길에서 다섯자가량야트논두렁으로 떠러지며전복되어 승객중십여명은 중경상을입엇다 부상자중 중상자일곱명은 부내영락정(永樂町)자혜병원(慈惠病院)으로 데려다가 입원시키고 치료중인데 상처는대개가슴과 어깨에라바상을 바든것으로 그중에서도 최성녀(崔姓女)외모(千某)(?)서모(徐某)(?)등 두녀인은생명이위독하다

이보고를바든 경기도경찰부보안과에서는 십이일아침 안모(安某)부장등이 현장에가서 사고의원인을 조사중이다

未安합니다 京忠빠쓰談

대단히 죄송하옵니다 위선피해자의 치료에 힘을다하고잇슴니다 부상자 일곱분에게 대하여서는 회사로서중분한 치료를하여 디리겟사옵니다 운전수는 벌바다치지는 아니힛스며 현재광주경찰서에서 취조를밧고잇는중인데 사고원인에대하야 당국의 조사가끗나기전에 이러다저러라 말할수는업스나 십이일오전까지의 상황으로보는『핸들』의『라이트』이 부러저서 운전의 자유를일흔까닭이아닌가 생각됨니다 대단히 미안히옵니다

名色만紳士인 詐欺賭博黨

龍山署十四名捕盡

지난구일 부내 청엽정(靑葉町)삼정목 고양정미소(高陽精米所)의 거간 주덕한(朱德漢)이가 주인이 쌀사달라고 맛긴 일천이백여원을 도박에 써버리고용산서에 붓들리엇다고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를합미아마 신사들도 조직된 사기도박단이 잇는것이 들어나 그일당 열네명이 용산서에 모조리 붓들리엇다 이들은

武藏町二八 農業 吳在烈(?)

[illegible]

小作統制令 運用協議會

各道小作官、農振課長等召集 來廿二日부터總督府에開催

월십팔부터 공포실시된 조선소작료통제령(朝鮮小作料統制令)은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법령인동시에 오래동안 여러가지폐단을 이저서 자못 복잡다단하사정을가지고잇슨 소작료를 여러가지점으로 철저히 고치랴는법령이므로 그운용에 잇서서도 매우 주도면밀한 준비가필요한것이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이 법령시행을 원활히하고자 오는이십이일 오전十시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각도소작관(小作官)과 소작관보 또소작관업는도에는농촌진흥과장을소집하여 농촌진흥국장(農村振興局長)주재하에소작료통제령운용협의회를개최하기로되엇다 이번회의는소작료통제에대한 여러가지 지시, 주의 법령의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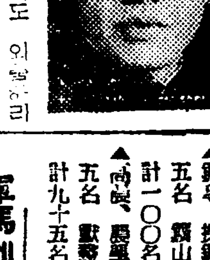
종래여러가지로 폐단이 만흔소작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위하여 이게된 경우로써 조선소작 명하는것은 [illegible] 물론 소작료 등 여러가지가 잇스나 의견 히말하여 이중에 위선제일차로 통제하여야 할 소작권의 이동을 개시하야 할 춘경기(春耕期)소작권이 동과 병행되는 소작료변경에 대하여 흡입케 하고 모르고 소작료를 입하후 올리는 등의 폐단 또는 소작료를 올리기위하여 무리하게 소작권을 이동하는등의 부당행위가 업도록 엄중한감시를 하도록 남상협의하여 구체적 방침을 세우랴는것이다

放蕩한所致

외동딸도 禁한다고大金强要한 不良大學生犯行動機

제일석간기보=사천원 (제일석간제목 이천원은오식)을 내시안된 외동딸의 생도로 유괴하겟다는 모대학생건상옥(金相玉(?))의 범행사건은 범인과 피해자가 모두 방학중의 학생인만큼 학교에다니는 자녀를둔 가정에큰 충동을 주고잇다 범인이 학생으로서 이가튼 엄지업는범행을하게된 동기는 과연 어디잇섯는가? 경찰의 취조에 의하면 범인은 가세는가난한데 본래방탕하여 각처로 돌아다니며유흥을하고 다시동경으로갈 노비를 나히일 어드려는 맘에서가정내용을 잘아는 먼 인척집을택하여 그가튼범행을 한것이라한다 즉 여사씨의딸이 방학중에『스케ー트』를하려매일 일찍외출하는것을 노리고 그날도 이와가치 외출하리라고 밋고 협박장을 우편으로 대던것이다 다행히 여자는편지가온 지 두시간만에 한강『스케ー트』장에서 모와 안잡하엿스나 범인은 이미 날도 개욱하여이차스집저차 집으로 다니며 면저一를 수차나 보내어서 돈을가저오라고 위협하엿든것이라고한다

(사진은 범인김상옥)



官立專門과大豫 十五日부터入學願接收

技術方面의志願輻輳를豫想

경성제국대학예과(豫科)는 비롯하여 경성법학전문 의학전문 고등공업 광산전문 고등상업 수원고농과 경성고등공업 사범학교등의 관립남자전문학교 신입생모집은 오는십오일부터 원서를접수하기 시작된다(고등공업은 이월일일 의전은 이월일일부터) 모집인원은 각학교 함하여 칠백육십일명이나 문과계통은 성대문과와 법전 고등상업의 이백삼십오명뿐 이고 남어지 오백이십육명은 기술자동원으로서 흥아건설의 기술자를 적극 요구하는 이때이니만큼 원서마감이 처신만흘것이 예상된다 이방면의지원자가 더욱 만흘것이예상된다 원서마감은 이월오일이고 그외에는 전부이월입학시험이 합격자가 다음과갓다

▲城大豫科 文科甲類(法學部)四〇名 同乙類(文學部)四〇名 理科甲類(理工學部)四〇名 同乙類(醫學部)八〇名 ▲醫專八〇名 ▲法專七〇名 ▲高工紡織科一五名 土木科一八名 機械科二〇名 電氣科二〇名 應用化學科二〇名 鑛山機械科一五名 合計一三一名 ▲鑛專 採鑛科五〇名 冶金科三〇名 鑛山機械科一五名 合計一〇〇名 ▲高農 農學科四〇名 林學科二五名 獸醫畜産學科三〇名 合計九十五名 ▲高商八五名

多獅島에流氷 船舶出入危險

다사도(多獅島)항구는 아직항만설비가 완성되어잇지 안키때문에 현재는 예선(曳船)또는부선하역(艀船荷役)을 행하고잇는판개상 유괴결빙으로 자못머리를 알코잇는데 일월一일에 입항한 조선우선회사의 동경신의환호 [illegible] 라고한다

軍馬에보내는 人情

조선경마구락부와 조선경마회와 경성승마구락부와 조선나생마(?)회에서 맹대로영한 온 흙당부배편을 가지고 십일오후 시예용산사단사령부로 차저가서 빛나는 무운을세우고서도 자랑하는 비그로

"列車事故二件"

【鐵道局發】▲평양검차구(檢車區)이부 오후아홉시 김영창(金永昌)(?) 군은 평양역에서 북경으로가는 급행열차『대륙』에 올을녀고잇던 음에 그대마침 부산으로가는급행『흥아』에 부디처서 중상을 입엇는데 십일일아침에 드디어 절명되엇다

▲십일오후한시쯤 원산으로부터 성진으로가던 제일전삼백삼십일열차가 여호(麗湖)퇴조(退潮)사이의 장동(長洞)터널을지나가던중에 함남함주군퇴조면송대리(松岱里)사는 노인은 박삼봉(朴三奉)(?)이라는 기관차에부디처서 다리가 부러저 그날오후네시에 절명되엇다 그는귀가 먹고 범어리엿기때문에 기차소리를 듯지못하고 치어죽게된것이다

氣溫上昇 各地에가랑비

엇그제만해도 수은주가영하십팔도오르내를 가른치는매운 치위에 사람들이 기를펴지못하는 날씨이드니 이제부터는 갑작이 기온이늑으러지기시작하여 오늘아침에는 엇제 그렇드냐는듯시 경성 인천지방일대와 평양 호남지방에는 때아닌가랑비가나리엇는데 이가치 주어야할 겨울날씨가 따뜻한것은 고기압이 북만주에잇고 지나대륙의 기압배치가 불안정하기때문으로 조선만나라 일본해방에서도 비가오고잇다 그리고 조선안기온은 예년에비해서 국경지방은 십도, 그밧게는 사도, 내지 팔도나 노프며 오늘 경성의정오온도는 빙점이상 가 일도일분이라한다

滿洲氷上代表歡迎會

朝鮮體育協會에서는 第二回鮮滿對抗綜合競技大會及冬季大會에參戰코자 十三日에入京할 大滿洲帝國代表選手를마지하여 十三日午後五時부터 半島호텔에서 歡迎晩餐會를열리라한다

鮮滿對抗選拔하키

【日光電話同盟】中學氷가하키ー二回戰(準決勝)

苫小牧中5(0 4、1 1、4 0)3盛岡中

京城師範7(4 1、1 1、2 0)2今市中

全國中等하키ー 京師軍決勝에

延友、延專軍各勝

鮮滿對抗出場選手 選拔氷上하키ー戰은 十二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延友對延專戰、延專對京商戰을 東京町城大링크에서擧行하엿는데 延友 延專軍이 勝利하엿다

延友10(3 1、2 1 0、3 6)5延專

【延專】 【友延】

FW		DF		GK
李英豊崔鄭[illegible]		[illegible]		鮮于明倫

1 反則 0

延專9(3 4、2 0、4 0)2京商

FW		PF		GK
英信昆載洪洙泰崔峯		一漢豊 [illegible]		國
長中山 野山田		村松 上永岩		柳

0 反則 0

全日本中等氷上開幕

【日光에서殿坂特派員】全日本中等氷上大會스피ー드競技는 十二日에 開始하바 千五百米에 京城帥中學 李秉昌君이 一着을占하고 金河吉君은 三位를차지하엿다(以下成文未詳)

色鉛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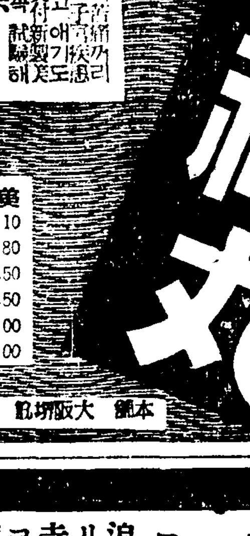
이 『구라파에전쟁』이 이러난이후 미국에서는여자모자가새로지국색을가지고유행한다는데 전쟁중인 구라파각국의 병대모자를본떠가지고 쓰고다니는것이 큰시체라던가 ▲그래서 유행가튼것에는 민감한 가지각색의 병대모자가 거리에 넘처흐르는 판이 장관이란다 ▲한편에 전쟁을하고잇는나라에선 편란드니, 하는 각국에서는 사선을 여자들이 전쟁에 자원하야 나가는 것이 만키때문에 모자도치레꺼리의병대모자가 아니라 정말병대모자에 군복까지입고 비장한얼굴로 거리를 다니는데 비하면 웃지못할 시체라할것이다 본래유행이란것은 장사아치들이 하기위해서 세상의부허한 심리에 마추어 생각해내는것이라 대개 거리의철부지들의 동에 한하는것도 여기까지이르러 유행하도 그럴뜻하게지만 국가와개인의 전운냉을 바치고싸우는그사람들의 승내를 유행꺼리로한다는데는 다시금 놀라지안흘수업다 ▲이즘 서울거리에도 양장한 젊은아가씨들이 사태가치쏘다저 나오는가운데 그모자가 도자기아 야릇한것을쓰며 ▲우리네들아가씨의 유행은 도어데까지나갈것인가 자못궁금하다

今夜의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京城) ▲午後六時 라디오時局讀本 ▲七時三〇分 朗讀 ▲八時(東)管絃樂 ▲八時四〇分 西道歌謠 ▲九時 唱劇調 ▲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第二放送 ▲六時三〇分 [illegible] ▲六時二五分 (東)講演 ▲七時四〇分 (東)中繼 ▲八時(東) [illegible] ▲八時四〇分 (大)落語 ▲九時一〇分 (東)時局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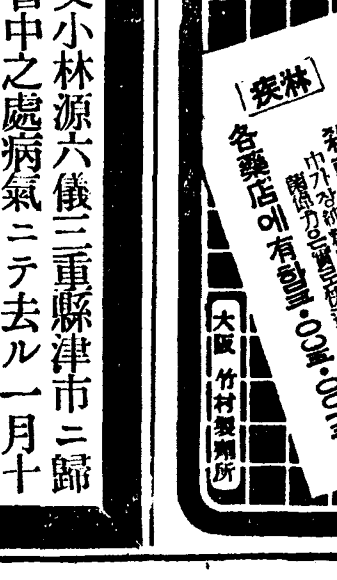
香芳 ハイナシン 一吹必殺



梅毒淋毒胎毒에는 蓮珠瘡皮風에는

原因療法을하야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 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 이어서 가지毒(梅毒、淋毒、酒毒、胎毒、藥毒、膿毒)을 體外로 排泄시키며 五臟六腑를 補하는데 비로소 眞正한治療와 健康을確得할수잇습니다 在來治療法의缺陷은 單只其局部에만 作用할藥을 使用하여왓스므로 어떤뜻하다 再發하는폐단이만잇섯는데 只今世上사람이 効力을보아 每日가치 感謝狀을밧는 淸血排毒 强壯劑「海草精」은 病의根源을 쑥쑥빼버리는 힘이 强大하여 누구나 服用하는날로 氣分을 알수잇스며 効力에 驚嘆하게됩니다 海草精으로 速히 貴下의 痼疾을곳치소서 改正藥價는 一個月分四圓九十錢 二個月分九圓二十錢 送料三十六錢 先金注文에는 送料弊所負擔하여 精密히 製藥하여 速送합니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番地 ホルモン醫化學硏究所로 注文하시는 분에 仔細한 病理와 治療方法의 冊子를 無料添送 振替京城二〇九八番 電光四〇九番



父小林源六儀三重縣津市ニ歸省中之處病氣ニテ去ル一月十一日午後零時三十分死去致候ニ付此段謹告仕候

追而來ル十四日鄕里津市ニ於テ密葬仕リ本葬ノ儀ハ來ル廿四日京城南山本願寺ニ於テ相營ミ可申候間同日午後三時ヨリ四時マデノ間ニ於テ御燒香ヲ賜リ度候

尙供花御供物ノ儀ハ堅ク御辭退申上候

昭和十五年一月十二日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七番地

嗣子 祐三郎
妻 はる
親族一同
友人一同

當社社長小林源六儀去一月十一日死去致候間此段謹告仕候

追而密葬ノ儀ハ來ル一月二十四日遺骨到着ノ上京城南山本願寺ニ於テ社葬ヲ以テ相營ミ可申候

昭和十五年一月十二日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丁子屋

學藝

文壇新年의 호픽展望

詩壇의現狀과希望(上)

傾向派와모더니즘

林和・金光均 對談會

金光均 『旗幟』『太陽의風俗』『季節』等 詩集을 最近에읽었는데, 어쩐일인지 前보다새로운맛이 적드군요. 다시말하자면 時代의 距離를 느끼게 돼요.

林和 具體的으로 感受할수있는 그어떠한 感銘이 업다말이지요.

金 勿論 한時代 前것에 比해서는 確實히 새로웟스나, 요즘에 읽으면 亦是 그것조차 모던이즘의 明朗性이란것도 벌써 그대로 享受되지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所謂 時精神의 距離이라는것이 아닐까요?

林 그야 어느時代를 勿論하고 새로운 詩가 나올 때는, 前時代의것보다는 新鮮한것이事實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數年後에 다시 읽어도 發表當時의 新鮮 嚴密한 感銘이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作品自體가 堅實한 永續性을 가저야 될것입니다.

金 그러니까 時代性이란것에잇서서 價値問題가 論議될수잇겟지요.

林 勿論입니다 그러데 形式의 新鮮味에 比해서 內容의 强固는 어떠케 生覺하십니까.

金 여기서 나는 作者가 作品을 選拔하는 態度보러 判異하여젓다고 느꼇습니다. 卽 얼마전만 하드래도 詩人들은 感情이나 情緖 그대로가 詩엿습니다만 最近에와서 詩人은 一步 나아가 일편 바다드린것을 한번 分析한 然後에 再綜合하는것이 아닐까. 이러케 느꼇습니다.

林 芝溶이나 李箱이나 片石村보다 한時代 前것은 어때요

金 그저 普遍的인 아름다움뿐이지 뭐 별로……。

林 巴人의詩를 요즘에 읽으면 어떠습니까.

金 『國境의밤』 流行한것에서는 當時의 그어떠한 時代的인呼吸을 느끼고 얼마간 感動할수도 잇지만, 그以後의 作品에잇서서는 경험이지 아무런 한 感激도 느낄도 어쩔수업드군요.

林 몃해前에 傾向文學이 한참 旺盛하던 시절에 發表되던 所謂 傾向詩란것은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金 傾向詩가 技術的으로서는 最近의 作品보다 拙劣햇던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作者가 늘 激烈한生活의行爲에서나온 自己의『모랄』自己의倫理를 追窮한다는—卽 作詩態度에 잇서서는 今日의 詩人은 배울點이 만타고 생각합니다.

林 片石村이 언젠가 人文評論에서 『技巧主義와 內容主義의 調和』란 말을 썻는데, 그건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金 허허 이건 對談會가 아니라 一問一答會군요.

林 아따 아무러면 대수요, 그저 서로 얘기하면 그게 對談會지.

金 글쎄—。 그것은 아무래도 『모더니즘』에 잇서서 主唱의 技巧와 또는 社會詩에 잇서서 社會性이 서로 『라이엔』되어 나가는 말을 한것 같은데 내생각가래서는 가른 社會性에 잇서서도 『리베랄리즘』이것과 傾向的인것이 다를것 가태요. 좀더 社會性이란것에 對해서 그內容을 充實히 規定해 주엇스면 조켓드군요.

林 이러한 提唱은 技巧主義에 對한 하나의 反省이 아닐까요. 技巧主義와 內容主義의 調和를 意味한다는 結論부러서 뒤집어 생각하여본다하더래도 反省의 提唱이라고 할수가 잇지안흘까요.

金 그러쵸 그러케도 생각할수 잇지요.

林 그러데 果然 技巧主義의 反省은 누구에게서 시작햇슬까 즉, 『反省하는詩人』은누굴까

金 ……

林 죽은 李箱이가 아닐까

金 글세 그러케도 生覺할수 잇지요 그의 晩作 『危篤』전것에서 느끼는것 가른것은 確實히 現代靑年의生活追求의所產이라 할수잇지요

林 李箱은 片石村이나 芝溶과는 確然히 다르죠 그가 試驗한것은 技巧主義的 詩風에 對한 反省은 아니엇슬까요

金 態度에 잇서서 全體的으로 自意識의 分裂이 엇고 絶望하는 思想의 苦悶이 엇다고 나는 生覺합니다

林 말하자면 李箱의 詩는 技巧主義를 歷史的으로 反省하는 現代的인 生活感情的인 作品이 아닐까요

金 李箱은 時代나 生活에서 不安을 느끼고 [illegible] 『데카당티슴』으로 떨어진 詩人이지요 그러나이 詩人의 『데카당티슴』은 아주 [illegible] 해버린 그것이 아니라 向上을 [illegible]하고 計劃하는 말하자면 向上하려는 『데카당티슴』이지요 이點에잇서서 [illegible] 이메-지』의 新鮮만을 取한 『모더니즘』파는 區別되어야 할것입니다.

林 本是 『이메-지』의 新鮮이 『모더니즘』의 『푸린시풀』이니까—그러나 李箱의 『데카당티슴』을 가지고 向上的인것이엇다고 할까요? 그에게 잇서서는 일허버린 人間이 恢復될 可能性이 보이지 안햇지요. 그보다도 李箱에게는 『모더니즘』에서는 볼수업는 [illegible] 가 잇섯지요.

金 勿論 李箱의 詩에서는 『슬픈 悲哀』를 더 만히 차즐수가 잇습니다. 그러나 그속에도 理由업시는 울지안는 明朗한 一面이 잇지안흘까요.

林 悲哀이야기가 나왓스니 말이지만 最近에 發表되는 詩를 보면 寂寞과 孤獨과 悲哀를 울픈것뿐이드군요.

金 그것도 生理的인것으로부터 오는 孤獨이나 悲哀가 아니지요.

林 吳章煥이나 李庸岳의 作品을 읽을때 于先 느끼지는것은 明朗性의 缺如얘요. 그래도 傾向詩나 『모더니즘』詩는 지금 比해서 여간 明朗한것이 아니엇지요.

金 傾向詩는 明朗햇다기보다도 懷疑以前의 生理的健康이지요

林 그러니까 技巧主義의 健康性이나 『모더니즘』의 明朗性이 [illegible] 悲哀의 世界로 들어왓다고 할수잇지요.

(對談하는 林氏(右端)와 金氏(左端))

世界의知性에 듯는다

"最後의清教徒"는 말한다

(下) 新휴매니즘의原理

八十一歲맛는 米國最大의碩學 쭌·듀이教授

歐洲의全體主義諸國은 以上의 못變化가나 흔 恐慌와 失敗의 흠을 라겻입니다 그들은民主主義보다도 더 銳敏하게 破綻을 認定하고는 當分間이나마民主主義에는업는 連絡과統一感을 全國民衆에게 提供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治療는 한낫注射에 지나지안어서 一時的效果가잇스나 오래지는못합니다 이勢力勝의 宗教가운데는 人類의結合과 協同에對한信念이업는까닭입니다

오늘의 哲學의問題는 物質力에人間의 目的을 爲해서 하는 人間의統制를 加하는 일이라 함은前해온바와 갓습니다 哲學은 이러한 變化의認識우에 새로운휴매니즘을 세워야합니다. 그리한 變化를 우리의 勝利를 위하야 어떠케 驅使할까하는 問題를 解決해야합니다.

그의 敎授의 오랜經驗을 通해서 時間은 現在와 無時間的知識의 相關關係다. 그가 처음 『버-몬트』公立學校에 갈적부터 또 六十年前에 卒業한大學에 갓슬 적부터도 關心을 가지던問題다. 卒業한後 五年만에 『존홉킨스』大學에서 學位를바덧다.

哲學博士가되자 그는 곳 『미쉬간』大學教授團에 參與햇다. 다음에는 번가라서 『미네소타』大學과 市俄古大學마 나종에는 『컬럼비아』大學에 敎授로 就任햇다. 거기서 그는 四分之一世紀以上을 哲學科를 指導하고잇다 그러나 西部와 首都의 오랜生活도 그에게서 實業家의 特異한 『휴-머-』를 빼앗지는안헛다.

그의哲學上 經驗의 어떤것은 그러케抽象的이나 그러나 그는 實業의哲學者가 아니다. 그는少數者의 스승이아니다. 그는 모-든遺産中에서도 가장 正當한것은 敎育이라고 생각하는까닭이다. 그는 生活에서 知識을 分離해서 神秘한것中에도神聖한것으로 孤立시키기를拒否한다. 知識의機能은 生活에 幸福을 가저오는데잇다고 그는主張한다.

『우리의 經濟問題 政治問題를보면 우리는 거기關한 많은知識과 統計를 가지고 잇습니다. 매우重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知識들이 智慧와 結合하지안흐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업습니다. 그것은 解釋되어야하는데解釋에야말로 哲學의 職分이 잇습니다.』

八十一歲의 『듀이』敎授는 混亂한世相을바라보면서 自身의內部에 慰安을 차즈려합니다……

『나는 이러케 말하겟습니다. 내人生哲學을 한말로한다면 忍耐입니다. 이것은 아마 八十年을 사럿다는것과 오랜眺望을 許諾하는地位에서 어든 利益의結果일것입니다. 나는 내生涯에너무나 만흔 變化를보아왓습니다. 그래서 現在의 두렷한 事象을通해서 未來를豫測할수잇습니다.

『빅토-리아』時代 卽 그 激한 變革들이 오기前이고 人間이품고잇는 理念들이 그環境에서 이러나는事象과 步調가 마저갈때 世界는 그時代의 사람에게는 살기조흔곳이엿습니다. 아즉마다도는해는 도하루 平和한날을 約束하고 저마다樂天的이엿습니다.……

오늘의우리는 全然 反對의位置에 잇습니다. 最悲의 『페시미즘』이 어리꾸진樂天主義에 代位햇습니다. 우리는 恐怖를 가지고 한밤한밤을 마지합니다. 이밤은 大體 무엇을가저올까를 怯내면서……。 자리에들기前에 거기出現할災殃을 한면기다립니다.

歷史라고하는것이 그속에는 進退가잇서서 모-든發展이란 漸次로 되어가는한 長久하고도 緩慢한行程이라고 생각하게한것은 아마도 내나히일것입니다.……그러나 文明은 나히어립니다. 어려서는 小兒病에 시달려야합니다. 疫病은 그러케목숨을 빼앗는것은 아니다. 文明은 어른이되기 까지는 면 曲折을 經驗해야합니다.

내哲學은 내게 現在의저편을 바라보기를 갈킵니다. 이것이 이와가튼 時節에 나를위매여 두는것입니다. 批判의 合理的應用인까닭입니다. 이는 個意보다도 現代에 立脚한것이다. 宗教가 그實信者에게하는것과가튼 目的에 이것을 化합니다.』

(K記者譯)

土曜詩壇

迎新賦

李燦

호젓한 커-텐을 모조리 걷고
玄關門도 덧문도 미다지도 되창도 활작 열어라
어서 숨막히는 습기를 마-르가니 모라내고,
그들의 고린내 숨인 방석을 朔風에 건늘리쟝
藩籬에 시드른再來는 한아지 새ㅅ파란 靑松으로 바꾸고
그 나히에 어울리잔는 천궁마준 파인은 기픈장속에 파무더다우.
점어든 壁上의 녯달력도 찌저라 찌저라 장장이 찌저라.
오래인날 히검으레 끄스러진 람포도 말쑥히 닥거라.
이제 산뜻한 나의房아
활활타는 爐邊 숭숭끌는 熱湯을 안고 가까워오는
새봄의 跫音을 기다리쟝.

藏書餘聞……(8)

焚書

金午星

그러나 낡어가면 갈수록 나는 내 藏書를 더욱 사랑하고 貴해햇다. 그것은 날로 닭어지고 허러가는 그藏書의갈피갈피에 波瀾과 苦痛으로빗어지고 잇는 내生涯의痕跡이 색여지고 잇스므로써이엇다.

내가 이六百의 藏書를 다시 떠메고, 이곳 外金剛을 들어온것은 再昨年가을이엇다. 九年間의 서울生活은 나를 餘地업시 疲勞케하엿다. 單히 肉體的으로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커다란 危機, 아니 『딜렘마』에 빠지고말엇다. 이리하여 醫師는 나를 肺患者로 [illegible]햇고, 速히 轉地療養하기를 勸告햇다. 그때의 心情도 여러가지로 서울生活에 진절머리를 친는때라, 나는 醫師의 勸告대로 집을떠나 이곳 저곳을 流轉하던끄테 이곳外金剛을 차저들어던것이다. 처음에는 單身으로 와 잇섯스나 主人일흔 家族들의生計가 이여갈길이업서 半年만인 再昨年末에 家族까지 이곳으로옴겨온것이다. 서울서 移舍할을 꾸릴때에 몃몃 親友들은 册만은 自己네집에 맛겨두라고 勸하엿다. 아무래도 金剛山서 永住하지는못할거고 몸만 回復되면 다시와야할것인즉 그동안 심심파적이나할趣味書나 몃卷가지고 가고는 서울두어두는것이 조치안흐냐는 것이엿다. 그러나 나는 이런 册들을 뜻지안햇다. 그것은 첫째 내苦難의痕跡을 갈피갈피 진이고잇는 册들을 얼마동안이라도 내겨테서 떠나잇게하고 십지안햇고 둘째 어찌되면 山中에서 내生涯가 끗날지도 모른다는 豫感이 들엇던 까닭이엿던것이다. 이리하여 낡은雜誌들만 處分해 버리고는 꾸역꾸역떠메고 이곳으로들어온것이다.

그러나 이곳 金剛山에 와서도 내册들은제자리에 安屯하지못햇다. 갑짜기집을 작만할수업섯던 나는 家族들을 一時는그곳잇는 妻家에맛겻다가 그뒤로는조그만商店을 溫井里에 작만하여 그리로보내두고 나는이곳神溪寺의好意로 寺境內의한間방을어더 내藏書六百과함께 起居키로된것이다 그러나비록 내집이아닌방정 우리가 차지한房은 서울서 家族과함께복작이든 방들에比해서 대단히安靜한것이엿다

歐洲大戰과 動物軍

☆비둘기 [illegible] 를 바더야하리라한 [illegible] 部隊의 活動이 [illegible] 당 바로 이얼은, [illegible] 大戰때와 마찬가지 [illegible] 당.

[illegible] 線에서는 눈에띄인다고하지만 動物戰士의 勇敢한活動은 거기에相當한 [illegible]

☆開書大戰때의 記錄에는 戰爭에 참여한 動物그중에서도 [illegible] 새의 功勞에대한 [illegible]를 전해준다.

五十萬의 米國 [illegible] 中에서도 [illegible] 『죄인롤세이』部隊의 [illegible] 한다리에 한눈에 [illegible] 를 바드면서도 [illegible] 『여러미』를 비롯해서 네男子를 [illegible] 『베르당』戰에 [illegible] 『프로아드헤르트』 [illegible] 해서 [illegible] 無名鳥의 功績 [illegible]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 (三)

金萬善 作
洪祐伯 畵

죽어을 무릅쓰고 그것도 배를 가진 까닭에 건저내엇다. 배라뮤 가운대로 배를 저어 때목보다도 더까불며 가까스로 하나 잡오면뒤에서 꿈틀거리는 다른 한개를 욕심만 내며 아래ㅅ강 철교밋까지 밀려가 겨우 한숨을 쉬엿당 그러한 때목을 주인에게 빼긴다니 그만 어수룩할수는업다. 때목주인을 동정해야할 양심을 쫏기에는 너무나 노력이 아가웁당 남의불행을 이용해 배를채운다는 것파는 성질이 달을것갓당.

때ㅅ목을 건진 사람은 한두 사람들이 아니당 배를 가진사람이면 누구나 한개라도 더 탐을 내다. 그들을 칭서만히그보다 극성스럽게 저들려 강변에 싸노핫다. 차츰 그의 초조하든 마음은 가라안는다. 혼자만 속을 태울것은 업슬것갓다 무슨일을 당하든 여러사람들이 다 가치 당할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하편 든든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른것으로 인해 또초조해진다. 아들의 일이 마음에 걸린다. 홍수가난 동안만 잠잠하든 노름을 또 시작한모양갓다. 『섬마』하고 미드려든 순간만은 마음을 놋수가 잇섯스나 주측을 그리로 쏠리면 금시로 가슴의괴가 따끌르면다.

일은도 허둥허둥 되는대로야 무려 노코 그는 손을런다.

『요번은 가드니 뭘해』

울타리넘어로 강변길을 더듬어 본다. 가까스로 내밀어든배를 편 울타리의키는 발뒤둥을 하게한다. 홍속해진 강물만 느리게움지길뿐 그외는 버드나무 틈까지도 꼼짝 안는다

그는 마른아프로 가 기둥에 걸린 밀집벙거지를 왁살스럽게 떼어 쓰며

『좋아오거든 가칠듁으로 곳보내라』

애꾸진 며누리에게 쏘아던지고 집을나선다

쇠똥네 문아줌 지내겁든 그는 그대로 지내지를 못한다 잠시 인기척을 살핀다 그러나꽉 다처진 집안은 고요하다 한거름 두거름 다거서 문틈으로엿본다 주측에 어그려저 노흔들은 업다 웃동을 버서부친쇠똥 어머니만 마루에합보로 자빠젓다 시드른 젖통이 마루에 느러젓다 호 마만 걸친아래ㅅ도리는 치마자락이 엽흐로 몰려 허버다리 궁둥이가 시원스럽게 뵈젓다 용궁당에서는 한참일이 벌어젓슬 때에 한가하게도 낫잠을 잔다 용궁당이 아니라도 밥술을어더 먹을 조흔수라도 생겻단 말인가 노름을 부치는것 쯤으론 그럴수가 업슬것이다.

조금도 람스런지가 안타 안해의 마른몸둥아리를 본것보다도 더 불쾌해진다. 그는 섬큼 물러선다. 아들이 와잇지 안흔겨 만이 다행하다. 그는 긴한숨을 어깨로 몰아낸다.

아직은 장마뒤끄치라 땀을 차리지 안흘것 갓다. 그러나 안심을 해서는 안된다. 철도 채면도 무시하는 그들이다. 이때라고 마음을 놋수는 업다. 오늘밤부터라도 시작할른지 모른다.

그는 아프로 아들에게 대할 태도를 생각해 본다.

(도적만 뵈지안흐면…)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안심할수가업다. 일상 되푸리하여 속아온 생각이다. 그 위의 수단을 필요를 안다. 결핏하면 세간사리를 집어내간다。

(그것을 마을수만 잇다면…)

그러랑 좀더 감시를 엄하게해서 그짓을 막어야한다. 그러면 이번 장마를 기회로 마음을잡게 할수도 잇슬것 갓다. 저도 별 도리는 업슬것이다. 자기친구들중에서도 돈을 꾸어줄사람은 업슬것이고 더구나 한번속아본 돈노리하는 장주사가 또 월수를 줄리는 업다.

筏橋

筏橋邑昭和町 和洋料理 カフエー 樂園 主 林漢淳 電話二八番

寶城郡筏橋邑壯陽里 梅谷共名組合梅山鑛業所 組合長兼代表者 李釆奉

筏橋邑昭和町 南鮮紹介所 主 李洙龍

京城丸金合資會社 筏橋出張所長 劉碩規

賀正

筏橋邑 寶興鐵工所 主 徐昌洙

筏橋邑南町 大新堂藥房 主 金性洙

筏橋邑西町 三友堂乾材局 主 宋允燮

筏橋邑 蔡重鉉

筏橋郵便所長 中本清兵衛

筏橋邑南町 光明鑄物工場 主 黃鎬一

筏橋邑筏橋里 日光園 主 李吉龍

筏橋邑 ㊂運送店 主 朴判述

筏橋邑永昌里 徐潤錫

筏橋邑長 中川啓次郎 外職員一同

筏橋邑尺嶺里 徐宋濠

筏橋邑 吳服商 吳即相

筏橋邑 筏橋製作所 主 金相玉

筏橋邑 ㊅丸南運送店 主 徐[illegible]

筏橋邑 司法書士 張太玉

筏橋邑西鳳里 尹得洙

筏橋邑 食料品商 主 金有卜

筏橋驛前 高天受

筏橋邑本町電話五七番 우리商會 和洋雜貨店 主 李容釆

筏橋邑 釀造會社 社長 曺萬國

筏橋邑長佐里 金壕洙

筏橋邑尺嶺里 高天得

江東

江東邑 金蘭培

筏橋邑大[illegible]里 裵世煥

平壤府八千代町五三六(平壤驛前) 機械工具 諸金物商 比野工具商會 電話三八一九番 振替京城二五一七一番

大同郡秋乙美面梨木里 金榮麟

江東邑內 江東光醫會

江東郡晩達面大成里 食料品雜貨 趙光銓商店

大同郡秋乙美面梨木市 金在億

大同郡秋乙美面梨木市 秋乙美面 [illegible] 全國輔

江東郡晩達面大成里 宋仁官

江東郡晩達面大成里 食料品雜貨 韓元龍商店

平壤府港町一二五 五輪自動車商會 張琰[illegible]

大同郡秋乙美面梨木市 米穀商 金瑾煥

平壤府南門通一丁目 建機商會

大同郡秋乙美面梨木市 李金華

平壤府南門町九八 自動車用品商 大和商會 電話 三八六 四三七

勝湖里一新館 妓生 金明玉

勝湖里一新館 妓生 吳秋月

勝湖里 中華料理 金信樓

江東郡晩達面事務所 職員一同

大同郡秋乙美面梨木市 大成醫院 院長 金志燦

勝湖幼稚園 園長 趙將鎬

勝湖里金融組合 理事 [illegible]木

平元線新成川驛前 ◎運送店 徐應烈

會寧

會寧酒造組合

會寧邑二洞 會寧邑飲食店組合

會寧邑藜山洞 蓬萊旅館 主 金丁植

會寧驛前通 不二洋服店 蔡秉龍

會寧邑藜山洞 京城旅館 主 李春根

會寧邑本町 酒類製造業 三光釀酒所 電話三三二番

咸北會寧邑西門通 三光精米所 電話四三七番

咸北會寧邑西門通 三光商會

會寧邑大正通 陶磁器 金物 雜貨商 尹元五商店

會寧邑藜山洞 寫眞家 金永秀

咸北會寧邑一洞 穀物商 貿易 李大舜

咸北會寧邑本町通 木材 貿易商 永信商會 朴永植 電話一二五番

會寧邑藜山洞 粲城旅館 主 尹容基

會寧邑一洞 平托販賣 鄭洪燮

會寧邑二洞 司法代書士 李環載

會寧邑二洞 古物商 姜秉喆

咸北會寧邑本町通 三泉堂藥房 振替京城四九九○番

會寧邑 平壤屋

會寧邑二洞 花月屋 李正[illegible]

會寧大正通 朝鮮冷麵屋

會寧邑一洞 三光屋

會寧邑二洞 順興屋 主 吳[illegible]

會寧邑二洞 松月亭

會寧邑藜山洞 會寧屋

會寧邑二洞 中央食堂

會寧藜山洞 咸興屋

會寧邑二洞 白樂園

會寧邑藜山洞 吉興屋

會寧邑二洞 八紘食堂

會寧邑二洞 平和食堂

會寧邑藜山洞 倍樂屋

會寧邑藜山洞 金昌善

會寧邑藜山洞 城津屋

寧越

江原道寧越郡北面磨磋里 烏川洋行磨磋支店 本店 江陵邑旭町 電話 一五一番

江原道寧越郡 朝鮮料理 蓬萊館

寧越邑 朝鮮日報社 寧越支局

寧越郡寧越面下松里 崔承喜

寧越郡北面磨磋里 金壽根

寧越郡北面磨磋里 日洋舍洗濯店

寧越郡上東面禮上里 金水釀造場 主 劉永福

寧越郡北面磨磋里 高溶柱

西洋洗濯各種染色 ペンチントライクリーニング 柳屋洗布所 江原道寧越邑

寧越報德寺宗務所 住持 金鍾圓 外一同

寧越郡北面磨磋里 中京商會 主 金東然

寧越郡北面磨磋里 永誠堂藥房 主 李相道

長津

咸南長津三浦市 朴燦星

大同鑛業株式會社 長津鑛業所

咸南長津三浦市 長津面協議會員 金景龍

咸南長津三浦里 李龜源商店

咸南長津三浦市 長津面協議會員 金源觀

論山

論山大和尋常小學校 職員一同

論山郡九子谷面 金昌圭

財産및投資對象으로서의土地 ⑥

朴克采

그리하여 封建的經濟의 支配的인 工業國에서는 平均利潤 法則이 廣大한 歪曲을받게되는事實을 우리는 여기에서 指摘할수잇다. 이 歪曲때문에 自由競爭이 完全히 遂行된다 假定하더라도 法則에서의 平均利潤은 出現하지안는다고 볼수밧게업다. 何如튼 이러한事態에는 企業家와, 地主와의 對立에 잇서서 利潤을 바든平均利潤以上의利潤을 最高限으로하고 現在의 農地價格을 最低限으로하는 中間의 一定額에 地代가 決定할수밧게업다. 中間의어느便에 가까운가는 그때의勢力條件如何에 依存한다. 이原理는 自由競爭下의資本主義에 市場經濟에서도 이여지마는 獨占資本에서도 이原理는 完全히 妥當한다. 다만 獨占資本에잇서서는 地主와 大資本家의對立에잇서서 前者의立場이 不利할것이다.

이제 朝鮮의現實에잇서서 이러한原理는 如何히 適用되고 잇는가. 朝鮮은 昭和四年 野口財閥의進出以來 工業化問題가 現實化하게되엇고 事變以來는 新東亞의 兵站基地로서 朝鮮은 그 하나의 큰 工業立地的 役割을 하고잇다 이는農業朝鮮에서 工業朝鮮으로의 一步前進이며 朝鮮의近代化傾向을 意味하는 重大한事實이다 이事實을 어떤사람은 朝鮮의産業革命이라는말로 表現한다. 野口氏의朝鮮進出은 內地工業資本의 朝鮮에依하는 朝鮮工業化의 先驅로서 歷史的意味를 가지는것이며 그와前後하여서는 朝鮮은 滿洲그대로 農業朝鮮이엇고 近代的工業은 十指를 屈할까말까의程度에 잇섯다 至今에와서는 巨大工業(重工業及輕工業)이 雨後의竹筍과 가치 叢生하여 一大偉觀을 呈하여잇스며 數年前에 比하여 果然 隔世의感이잇다. 昭和十一年秋에 開催된 朝鮮産業經濟調査會의 答申은 今後의工業化의 指針이 되는것인데 이에 依하여보더라도 今後의 發展은 括目할것이잇다 이工業化傾向에따라 朝鮮사람에게는 近年都會地의土地投資, 乃至土地投機가 盛行하여 一大社會問題를 惹起하고잇다. 大規模의工業地帶로 指定되어잇는 곳은 京仁地帶, 平壤鎭南浦地帶, 新義州多獅島地帶, 咸興興南地帶, 淸津羅津地帶이고, 以外에도 地方에 大小工業地帶가 散在하여 그面積은 膨大하다.

이 大規模의工業立地는 交通施設, 水力電氣, 地下資源開發을 그前提로하고 進行하게되므로 新都市의勃興을 誘致하고 工業人口와 農業人口와의比率, 및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都市의地價는 바야흐로 이다. 이에關聯하여 工業地帶의 新興都市의 市街地價格이 暴騰하게되엇스니 이現象이 朝鮮的으로 一時에 나타난것은 朝鮮사람의 經濟에 一大衝動을 주고잇다.

工場用地의 價格에關하여는 그原理를 이미 祥述하엿거니와 市街地, 商業及住宅用地의價格도 亦是 位置에따라 地代를 要素로하고 決定되나니 商業用地는 商業의 利潤으로써 이를 買收하며 住宅用地는 原則上 一般企業의 利潤으로써 買收한다. 住宅地의 地價는 勤勞者에 對한 生活費의 一部分으로서의 住宅料를 支拂하여야 企業이 이것을 支拂하게되므로 이를 工場用地의 延長으로 생각하여 볼수잇다. 따라서 住宅地價格의 決定要素도 工場用地價格의 그것과 비슷하다. 現在朝鮮의 住宅地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다. 이에關하야 朝鮮의 住宅地價格은 不在地主 및其他 都市地主의 所有者에게도 適用될 것이다.

現在朝鮮의住宅地에잇서서 住宅難이 切迫하게된 原因은 住宅地價格의 暴騰에 잇는 것이나 그러나 이러한 것은 根本問題가 아니다. 여기에서 朝鮮都市의 住宅地價格이 暴騰하는 原因은 人口의 都市集中이 生하여 宅地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는 工業化傾向의 原因으로 土地에 投機의 地價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근래의 住宅難의 原因이다.

朝鮮의生産總額 三十億六千萬圓

鑛産을除한十三年中의概算

工産額의增加가顯著

鑛産額을除한 昭和十三年中의 朝鮮內生産價額概算(總督府各局發表分合計)은 三十億六千二百四十五萬八百十八萬圓으로 前年同期의 二十八億三千五百六十萬圓에 比하여 二億二千六百八十五萬六百二十圓(約七分五厘)의增加를 示하엿다 右部門別內容은 如左하여 工産額의增加가 顯著하고 其他는 大體前年同期보다 別無增減이오 農産物의總生産高에對한比率은 約五○%로서 總生産高에對한 比重이 이러케 激減된것은 朝鮮의工, 鑛, 水産에의 發展이强化되는것으로서 注目되는데 生産額의 部門別內容과 前年比較는 如左하다 (單位圓)

	十三年	十二年
農産額	[illegible]	[illegible]
林産額	[illegible]	[illegible]
水産額	[illegible]	[illegible]
工産額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北朝鮮開拓協議會

農林局에서는 一月七日부터 十日까지 四日間에亘하여 平北, 咸南北道의 關係職員及 關係營林署保護係主任을集合 北朝鮮開拓事業實行事務協議會를 每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決定하엿다

米穀專賣制

農産物生産額

十五億七千餘萬圓

總督府發表=昭和十三年中의農産物價額은 十五億七千五百七十八萬七千九百八十四圓으로 前年度에比하여 千五百三十萬五百二十圓의 增加를示한바 內容은如左하다 (單位千圓)

	十三年	十二年
普通農産	[illegible]	[illegible]
畜産物	[illegible]	[illegible]
蠶業	[illegible]	[illegible]
加工品	[illegible]	[illegible]
自給肥料	[illegible]	[illegible]

實施急務

平南北地方 米出廻順調

山本穀檢所長談

平南北에 出張中이던 山本穀檢所長은 이지음歸任하엿는데 同地方의 米穀事情其他에 對하여如左히말한다

正租價格이 道의暫定的價格보다 調整令에依한公定價가 싸게 決定된關係上 農家에서 賣惜하여 正租의出廻도 一時順調를缺하고잇섯스나 最近道郡의 活動과 農民自體로서 이以上의高價는업다는것이 判然하게되엇스므로 出廻가漸次順調로히 復舊되고잇다 雜穀特히 大豆는農家의食糧品으로서 貯藏하고잇스나 當局으로선 滿洲大豆를 輸入하여 農家에 配給하는同時에 朝鮮産大豆는 內地에移出할 方針을取하고잇다 經濟的見地及 用途로보아 그러케하는것이 合理的인까닭으로 우선雜燕其他에서 買付한 滿洲大豆대신으로 內地移出에 努力할생각이다

藁價暴騰으로 叺生産阻止

藁도公定價格制定

最近朝鮮內의 藁의需給은圓滑치못하여 西朝鮮地方과가튼곳은 一貫十五錢에 賣買되는모양이다 叺의 賣渡價格이 公定되어잇음에對하여 이가치 原料藁가暴騰되는것은 叺增産을 阻害하는結果로되므로 農林局에서도 各道로하여금 藁叺의 公定價制定을 急히하게하여 叺生産維持에 萬全을 期키로되엇다

東亞産業會社 發起人會開催

北支의 貿易振興과 其開發을計圖키爲하여 設立計劃中이던 資本金二百萬圓의 東亞産業會社發起人會는 十二日午後二時朝鮮호텔에서 開催하고 株式의引受其他創立에 關한協議를하엿는데 同社發起人은 韓相龍, 朴興植氏等이要하여 朝鮮의 有力實業家를 網羅하엿다

日銀券續收縮

三十億圓割下

金融界 膨脹을보이어 昨年十二月三十日發行高는 三十八億을 突破한 日銀券은 一月에入하면서부터 漸次로收縮되기시작하여 마침내 三十億圓의 大臺를割下하엿다 即十二日에 收縮된 發行高를보면 二十九億九千二百九萬六千圓으로서 前日에比하면 三千四十七萬四千圓의減少이며 또 昨年十二月三十日 最高發行에比하면 實로八億二千五百六十五萬六千圓의 收縮이 되엇다

圓系通貨五十六億

物價三、四倍急騰

인플레防止가最急務

通貨의 膨脹과 物價의 急騰은 戰時에잇서서의共通的現象인데 我國은 戰鬪와建設의 二元的東亞新秩序의 建設工作을 이미二年有半에亘하여 繼續하고잇는만큼 內地, 臺灣, 朝鮮을爲始하여 圓貨圈의滿, 支, 蒙疆에잇서서의 情勢는新年을 마지함과함께 事變下最大關心事로되어잇다 今年에入해서는 物資減少下에通貨의 膨脹은드디어 顯著해진點이매우注目된다 (通貨單位百萬圓, 物價는指數)

	通貨		物價
【內地】日銀券(最高) 小賣物價 卸賣物價	[illegible]		
【臺灣】臺銀券(最高) 卸賣物價	[illegible]		
【朝鮮】鮮銀券(最高) 卸賣物價	[illegible]		
【滿洲】中銀券 卸賣物價	[illegible]		
【北支】聯銀券 小賣物價	[illegible]		
【蒙疆】蒙疆券	[illegible]		
【中支】華興券 卸賣物價	[illegible]		
軍票를除한圓系通貨合計	[illegible]		

以上과가튼 形勢이다 場所에따라서는 物價는 三倍四倍로 騰貴된곳도잇스며 軍票를除한圓系通貨가 벌서 五十六億圓에達하고도 더욱膨脹이豫想되어 物價騰貴에 拍車를加하고잇다. 이에對하여 政府에서는 各其그對策을 急히 講究한다고는하나 國民大衆의 協力을要하는것은 勿論으로서 如左히許多한 戒心해야될 點을示唆하고잇다

大藏省方針

돈과物의均衡强化

最近의 通貨膨脹에對하여 大藏省에서는 其對策을 講究하고잇는데 大藏의方針으로서는 (一)消費節約 (二)貯蓄獎勵 (三)臨時資金調整法의運用强化 (四)會社利益配當金의 運用强化 (五)公債消化의促進 (六)公債의大衆化促進等從來의 方針을强化하는同時에 各其資金을 公債消化와 生産擴充資金에 配分하는나에잇는데 이에對해서는 今年은 物資와의照合을 一層嚴格히할 方針이며 다시固定資金뿐만아니라 運轉資金에對해서도 一層統制를强化시킬모양이다 要컨대今後일지라도 通貨膨脹의 趨勢는必然的으로서 金과 物과의 均衡을保持하는것이 通貨政策의根幹으로서 이러한 見地에서 여러가지로 統制를强化시킬工作이 進行될것이며 또 物價政策이 極히 密接한關係에잇스므로 모든問題에對해서 物價의 立場에서 商工省과 連絡協調하여 物價를抑制하기에努力하고잇다

商工省對策

增産과消費抑制로

商工省의 對策으로서는 特히 低物價政策의徹底에對하여 價重한 具體策을 樹立하여 實行하기로되어잇다其對策은

一、國內的으로는 國民生活의 安定을 目標로하고 物價統制의徹底를 期하기爲하여 生産의 增强과 消費의 節約을 圖하는 同時에 이르기까지 强力한統制를 實施할 特히物資의 生産을增加시키기爲하여 石炭에對한 獎勵金制度의 實施等 여러가지로方策을講究하고 根本的으로 物資의 數量을增加시킨다 一方主要都市에잇서서의 木炭等配給을 消費量適當하게 配給시킬方法을講究함

一、圓貨圈에對해서는 滿洲國方面에對해서는 滿洲國興業院의通達或은軍方面의 說明이잇는것은 原則에依하여 輸出을制限하고잇는데 滿洲國方面에對해서는 輸出統制規則에依하여 輸出을許可하고 特히 同方面의 國民生活必需品에 對해서는 될수잇는限 要求에應하여 物資를輸出하여 圓系通貨의 인플레化를阻止한다

一、또輸出價格에對해서는 滿洲國方面에서는 內地의卸賣價格에依하여 輸出해주기를 希望하고잇스며 또 輸出機關도 統制하여組合에依한 一律的輸出機關의 是正을 要望하고잇스므로 이에對해서는 九·一八價格을 固定한輸出에도 適用하여不當한 騰貴를 抑制하엿는데 다시此等要求에 應하여 輸出統制에對한 價格의適正化를 圖謀하는等이다 그러므로 物價統制는通貨膨脹에對한 手段이니 連絡下에實施될터인데 根本的인 具體策은 中央物價委員會及 物價局의 改組決定을기다리어 樹立될터이므로 圓系通貨關係의 方針은 日滿支經濟協議會에잇서서 今後方針을 講究케될모양이다

生糸極度入手難

交織機業界에暗影

生絲配給에對하여 內地에서는 來二十日부터 購買票制를 實施하기로된바 朝鮮內에잇서서의 人絹機業은人絹絲不足으로絹과人絹의交織을하고絹의原絲인生絲는거의 內地에서移入하는狀態로 最近은 絲價高에따라 그入手가困難하고 今回다시 購買票制의實施를 보게되엇스므로 그入手가 一層困難하게되어 朝鮮交織機業界에 一大暗影을 投하게되엇다 朝鮮人絹織物工業組合에서는 十一日牧山理事及 小川書記長으로하여금 總督府를訪問시켜 右入手難打開策等에對하여 協議를한바 總督府當局에서는 아직生絲配給에關한 統制方針이 決定되지안핫스나 內地에追從하여 그統制方針을 決定할것으로 보이어 그推移는자못 注目된다

簡保諮問委員會

第二十四回 朝鮮簡易保險事業諮問委員會를 十三日午前十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委員, 幹事, 關係官約四十名이參集하여 委員長大野政務總監統裁下에開催하는바 諮問事項으로는 昭和十四年度 朝鮮簡易保險積立金의 第三回貸付及引受에關한件이 主題이다

東亞輸送組合設立

【神戶電話同盟】支那方面物資輸送의統制一元化를 圖키爲하여設立中이던 東亞輸送組合에서는十一日午後 神戶오리엔탈호텔에서 設立準備會를 開催하고 組合細目의決定을 보앗스므로 來十五日理事會에諮한後 遞信省에 認可申請을하리라한다

土改事業懇談會

財界와大地主의協力要請

十五年度부터 實施하는 增米計畫에依하여 向後六個年間에十六萬三千町步의 土地改良事業에着手하게 되는데 大事業인만큼財界와大地主의 諒解와 協力이必要하므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十五日午後一時半부터 中島會에 左記各氏를 招請하여 土改事業懇談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民間側 出席者는 殖銀有賀頭取, 殖銀富永理事, 東拓上內理事, 三井不二興業社長其他數名이고 總督府側에서는 湯村農林局長, 細見土改課長, 局內技師等이다

土改事業協議

總督府에서는 土地改良事業의 復活과 新增米計畫의 實施에 際會하여 各道土地改良事業의 協議를 期키爲하여

殖銀預貸膨脹

貸出八億突破

殖銀의 客年末現在預金貸出高는 預金二億五千六十七萬九千圓 貸出 八億五百四十七萬九千圓으로서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預金에잇서서 二千六百八萬六千圓 貸出에잇서서 一億七千二百八十一萬三千圓의 各其激增이엇다

生産材의輸移入

昨年中五千萬圓增加

兵站基地朝鮮의 生産擴充에 隨하여 昭和十四年中에 잇서서의 生産材의 輸移入狀況을보면 機械, 木材의 輸入이 가장激增하여 其輸移入總額은 一億三千七百八十九萬七千圓에 達하고 前年에比하면五千四百八十九萬九千圓의 增加이다 一方滿洲, 中, 北支로의輸出은 一千九百十六萬五千圓으로 前年에比하면 九百三十六萬六千圓의 增加인데 이것은朝鮮産이아니라 內地品의中繼이다

▲輸入(單位千圓)

	十四年	前年比
石炭	[illegible]	[illegible]
機械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洋灰	[illegible]	[illegible]

▲移入 / ▲輸出 / ▲移出

鋼鐵	[illegible]	[illegible]
機械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洋灰	[illegible]	[illegible]
機械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和信幹部異動

和信百貨店에서는 擴張强化에伴하여 百貨店部를 新設키로하고 新任代表에 申泰彦, 朱雲燮氏 同時任命되고 이것을機會로 同社及各傍系社에잇서는 去九日附로 左와如히 幹部의 異動을 行하엿다

▲連鎖店部長 朱雲燮 ▲百貨店部長 申泰彦 ▲平壤支店長 張澤龜 ▲會計部長 印東淳 ▲用度部長 ▲外商部長 片桐孫四 ▲大阪仕入部長 ▲仕入部長(兼務) 李秉植 ▲支店長(同上)▲販賣部長(兼務) 命平田孝吉(新外商部長)

○三越京城支店長交迭=三越의人事異動에伴하여 京城支店長 三輪邦太郞氏는 大阪支店長에 轉任하고 그後任으로서 仙臺支店長三田潤吉氏가 決定

一言

▼……政局은逆轉, 다음內閣은 決코 朝鮮가아닐것도 無妨.

▼……新內閣의 命題는 무엇? 物資, 物價에對한 新平和對策.

▼……지금까지 失敗를 거듭하던 經濟에 徹底하여 徹底한 勇斷期待.

▼……物資, 通貨膨脹으로인한 물價防止가 今日日本의 最大急務.

▼……第一먼저 손대어야 할것이 物資問題, 暴利取締, 闇取引絶滅을 期하라.

▼……昭和十三年의 朝鮮의 總生産額(鑛山을除한)은 三十億六千萬圓으로 比前年七分五厘增.

▼……工産額의 增加가 顯著하다는것은 未發表의 鑛産額激增과 아울러 時局下 當然之事.

▼……이現象은 今後도 繼續될것으로 數年後의 生産統計는 一瞥할것이 잇을것.

今日의市勢 十二日

株式 小往來로 浮動

前場不動 今朝는 東新一高인 百五十九圓四 大新六低인七十七圓一 鐘紡百八十二圓九에寄付되後 新規出動을 警告하여 不動商狀을呈하다가 結局 東新百四十九圓五에 大引

後場閑散 後場은 東新不變인 百四十九圓五 鐘紡百八十二圓九 鐘新百二十二圓五에 凡調寄付後 閑散을呈하엿다

緊張裡待機

歐洲에서는 又復獨逸의 和蘭侵入計畫을傳하고 英獨間에는 至近 大波紋이 미치지나안을가하여 緊張裡待機하고잇다

株……現內閣의 政局一新에對한 決意는이미 確定된모양이나 數日中에 一大轉換을豫想하여 그러나그轉換에따라서는財界全般에도 波紋이잇을지도모른다하여 緊張待機中◆이만큼 閑散이持續되엇스니 아프로政局不安이 急速打開를 보지못하면 一押을示하게될것이如何間에 政局의 數日中何에追從할市勢인만큼 數日中의 動向이注目된다

現物區區

現物으로는 一高一低모양을 물하는데 淸算全力의 膠着으로 現物 材料를 包含하고잇스나 그대로 買氣가잇서 日本마네新은 一圓五十錢인 四十三圓五 五十二圓五이엇스며 朝陽鑛業도 將來性을好感코 一圓高인 二十圓七까지 買進되엇다

今日의財界 十二日

◆米穀(京城, 公定價)

正租(日銀坊主三等)斤三錢五 玄米(日銀坊主三等) 石[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同)[illegible]

◆雜穀(仁川, 都賣價公定)

大麥 一六○斤 [illegible]
裸麥 二三○斤 [illegible]
粟 二三○斤 [illegible]
大豆 龍山三等 [illegible]

◆株(單位十錢) 朝新 東新 鍾紡 鐘新

◆商品(先限單位錢·厘) 綿絲 棉布 [illegible]

米延 閑散 賣買殆無

前場不成 今朝도 全然賣買가업섯다.

後場同調 後場도玄米는全然賣買不成이고 正租가 一區二月限 十二圓五十九錢 一本뿐이엇다

重石·水鉛
金買入
銀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の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二五番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 ◆內地株式 / ◆滿支株式

海外經濟 十一日

銀行券 十一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京城物價 十二日

對外爲替

鯛油粕·麥粉

株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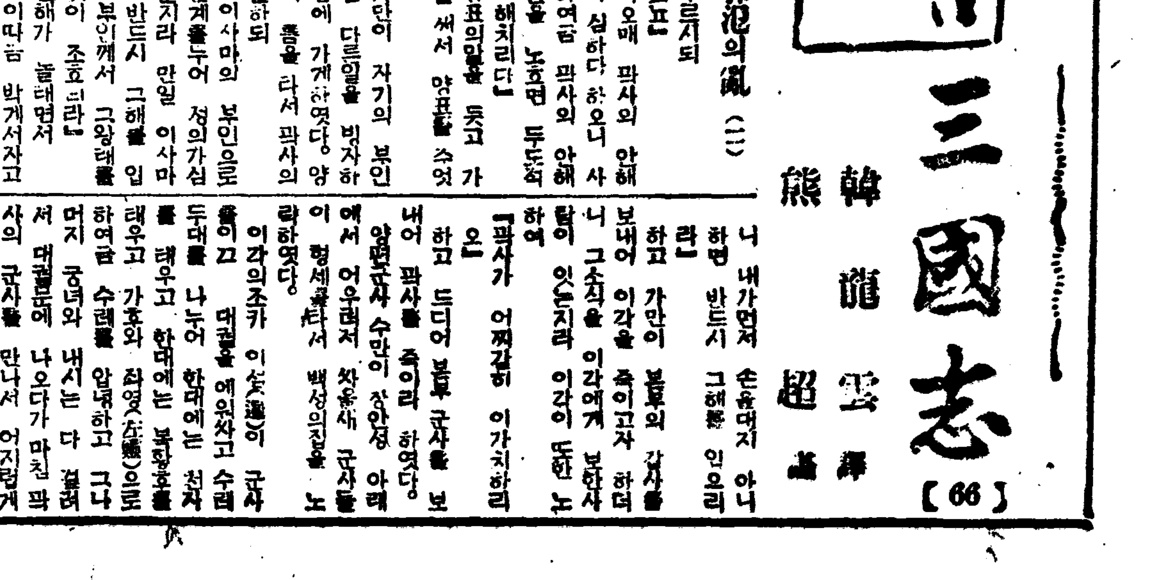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現株

延米 / 棉花 / 綿布 / 生糸

三國志 (66)

韓龍雲 譯 / 熊超 畫

李傕郭汜의亂 (二)



입금이 무르시되 「군은 계교뇨」 「신이 듯사오매 파사의 안해가 투기가 심하다 하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파사의 안해에게 반간을 노흐면 두도적이 서로 해치리다」 입금이 양표의밀을 듯고 가만이 조서를 써서 양표를 주엇다.

양표가 가만이 자기의 부인으로 하여금 다른일을 빙자하고 파사의집에 가게하엿다 양표의 부인이 틈을 타서 파사의 안해에게 말하되 「파장군이 이사마의 부인으로 더부러 파게를두어 정의가심히 가까운지라 만일 이사마가 알면 반드시 그해를 입을것이니 부인께서 조호리라」 파사의 안해가 놀내면서 「괴이하게 파장군이 이따금 밖에서자고 도라오지 안는것을 괴이쩍게 알엇더니 누가 그러한일이잇는줄을 알엇스리오 부인의말슴이 아니더면 내가 알지못

하엿스리로다 마땅이 박비하리라」 양표의 부인이 돌아갈새 파사의 안해가 두세번 사례하고 전송하엿다. 두어날이 지나서 파사가 이각의 잔치에 참예할새 안해가 말하되 「이각의 성품이 불칙한지라 이제 두영웅이 함께서기 어려우니 이각이 만일 술에다 독약을 너흐면 어찌하리오」 파사가 짐짓 이러한 말을 듯지아니하고 가고자하니 안해가 두세번 권하여 만류하더니 날이저물매 이각이 술과 안주를 보내엇스니 파사의 안해가 가만이 그술에다 독약을 타서 올리니 파사가 마시려할새 안해가 말하되 「술이 밖에서 들어왓스니 어찌 그대로 마시리오」 하고 먼저 개에게 시험하니 개가 술을마시고 곳 죽는지라 이로부터 파사가 의심을 가지더니 하루는 조회가 파하자 이각이 억지로 파사를 끌고 자기집에가서 술을 마시다가 밤에서야 흐터젓는데 파사가 취하고 돌아와서 우연히 배가 아프지라 안해가 말하되 「반드시 독을 마신것이라」 하고 똥즙을 만들어 마시게하매 한번토하고 가라안는지라 파사가 크게 노하여 「내가 이각으로 더부러 한가지로 큰일을 드도하거늘 이제 무단히 나를 해하고자하

니 내가 먼저 손을대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해를 입으리라」 하고 가만이 본부의 갑사를 점고하여 이각을 죽이고자 하더니 그소식을 이각에게 보하니 이각이 또한 노하여 「파사가 어찌감히 이가치하리오」 하고 드디어 본부 군사를 보내어 파사를 죽이라 하엿다. 양편군사 수만이 장안성 아래에서 어우러저 싸울새 군사를 이 형세를타서 백성의집을 노략하엿다. 이각의조카 이섬(李暹)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에워싸고 수레 두대를 나누어 하대에는 천자를 태우고 하대에는 복황후를 태우고 가후와 좌령(左靈)으로 하여금 수레를 압내하고 그나머지 궁녀와 내시는 다 걸려서 대궐문에 나오다가 마침 파사의 군사를 만나서 어지럽게 쏘니 궁인의 죽어이 수가 업는지라 이각이 뒤에서 엄살하여오매 파사의 군사가 물러가는지라 임금의 수레가 위태함

을 무릅스고 섬에 나와 마침 내 이각의 진중에 들어가니 파사가 군사를 몰고 궁에 들어가 궁빈과 궁녀들을 노략하여 진중에 들이고 불을 노하 궁궐을 살랏다.

이튿날에 파사가 비로소 이각이 천자를 겁박한줄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각의 진을 직처오매 천자와 황후가 다놀래엿다. 이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파사를마저 싸우다가 파사의 군사가 이롭지 못하여 물러갓다.

이각이 천자와 황후의 일행을 미오에 옴기고 조카 이섬으로 지키게하여 안팍의 왕래를 끈코 음식을 이으지 아니하니 모신 신하들이 다 주린 비치 잇는지라 임금이 사람을 이각에게 보내어 쌀 다섯휘와 소뼈 다섯벌을 청한테 이각이 노하여

「아침 저녁으로 밥을 들이거늘 또 무엇을 구하는고」 하고 이에 썩은 고기와 묵은쌀을 주니 냄새가나서 먹을수가 업는지라 임금이 꾸짓되 「역적놈이 이가치 속이는구나」 시중 양표가 급히 아뢰되 「이각의 성품이 사나웁고 또 일이 이에 이르럿스니 폐하는 참으소서 그칼날을 다치지 못하리다」 임금이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업시 눈물이 용포소매를 적시엇다.